

2014년11월13일년 수능(윤리와사상)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

【1과목 : 19문제】 과목구분없음	1	2	3	4	5	6	7	8	9	10
	⑤	①	②	④	④	⑤	③	①	③	②
	11	12	13	14	15	16	17	18	19	
	①	②	①	③	③	④	⑤	①	⑤	

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: <https://www.cbtestpro.kr>

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(오타 • 오답 • 규정변경)은 cbtestpro.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.

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. cbtestpro.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.



전자문제집 CBT

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!



【1과목】 과목구분없음 (19문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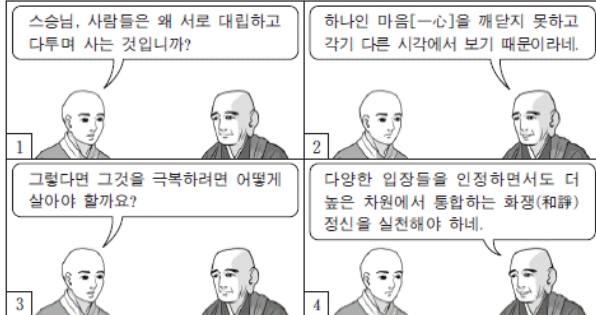


전자문제집 CBT(App Store) : [다운로드](#)



전자문제집 CBT(Google Play) : [다운로드](#)

1.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.
- ②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변의 자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.
- ③ 사회적 도덕규범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.
- ④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절대자와의 합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.

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.

2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갑: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. 왜냐하면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자 주인이기 때문이다.
을: 선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.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.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, 행복의 필수 요소는 중용의 덕이다.

① 갑은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본다.

② 갑은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제의 덕이 필요 없다고 본다.

③ 을은 용기의 덕을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로 본다.

④ 을은 인간적 덕과 시민적 덕을 동시에 갖추 수는 없다고 본다.

⑤ 갑, 을은 도덕적 진리의 근원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.

3.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성인(聖人)은 그 은혜가 만대(萬代)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.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. 친소(親疏)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(仁者)가 아니고, 이해(利害)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,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.

① 군주는 인정(人情)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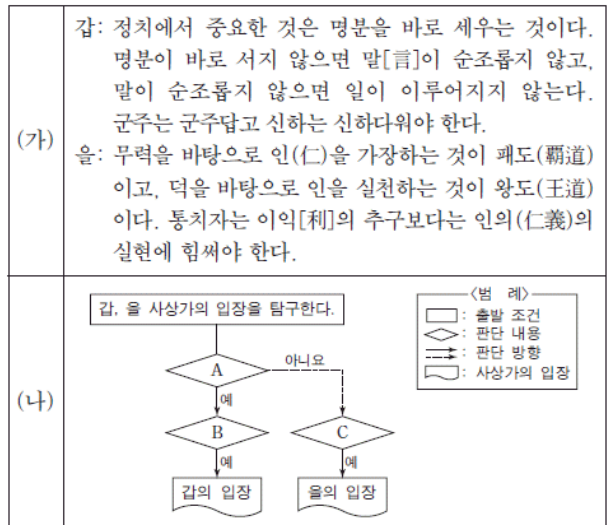
② 성인은 시비(是非)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.

③ 군자는 사단(四端)을 확충하여 인정(仁政)을 실시해야 한다.

④ 선비는 예법(禮)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.

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(兼愛)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.

4. (가)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

① A: 효(孝)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?

② B: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능(養能)을 지닌다고 주장하는가?

③ B: 정명(正名)에 입각한 역성혁명(易姓革命)을 주장하는가?

④ C: 일정한 생업[恒産] 보장을 왕도(王道)의 시작으로 보는가?

⑤ C: 생산 활동을 통한 백성의 경제적 이익[利] 추구를 부정하는가

5. 서양 사상이 갑은 긍정,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

갑: 유덕함은 영혼의 훌륭함을 말한다. 따라서 영혼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. 유덕함이 무엇인지 알면서 부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. 모든 부덕한 행위는 무지로부터 나온다.
을: 유덕함과 부덕함의 구분은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비난의 소감에 근거한다. 시인(是認)의 대상은 유덕함이 되고, 부인(否認)의 대상은 부덕함이 된다. 이처럼 도덕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.

① 도덕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는가?

② 도덕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에 근거하는가?

③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데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되는가?

④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가?

⑤ 도덕적 덕과 악덕의 구별이 감각 경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?

6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갑: 사단(四端)은 단지 이(理)만 말한 것이고 칠정(七情)은 이와 기(氣)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, 두 갈래의 정(情)이 있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(發)한다는 설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.
을: 칠정은 이(理)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(感應)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다.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. 이것은 이(理)를 위주로 말하면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.
병: 어떤 이가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주는데,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롭다[義]고 할 수 없다.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주지권(自主之權)이 있어, 선을 행하면 공(功)이 되고 악을 행하면 죄(罪)가 된다.

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(所從)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.

② 을은 본연지성은 발하는 과정에서 선악으로 나뉜다고 본다.

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.

④ 을은 갑과 달리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.

⑤ 갑, 을은 기가 발할 때에는 항상 이가 기를 탄다(乘)고 본다.

7. 을은 부정, 병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사단(四端)은 단지 이(理)만 말한 것이고 칠정(七情)은 이와 기(氣)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, 두 갈래의 정(情)이 있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(發)한다는 설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.
을: 칠정은 이(理)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(感應)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다.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. 이것은 이(理)를 위주로 말하면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.
병: 어떤 이가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주는데,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롭다[義]고 할 수 없다.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주지권(自主之權)이 있어, 선을 행하면 공(功)이 되고 악을 행하면 죄(罪)가 된다.

— <보기> —

ㄱ.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[行事]으로써 형성되는가?
ㄴ. 인의예지(仁義禮智)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획득되는가?
ㄷ. 덕(德)은 마음의 이치[理]로서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가?
ㄹ.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향[嗜好]은 인간의 본성[性]인가?

① ㄱ, ㄴ

② ㄱ, ㄷ

③ ㄴ, ㄹ

④ ㄱ, ㄷ, ㄹ

⑤ ㄴ, ㄷ, ㄹ

8. (가) 사상의 관점에서 (나)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(가) 민족은 심리적, 문화적, 생태적 유기체이자 혈통, 언어, 지역이라는 공통 요소로 결속된 운명공동체로 규정되어야 한다. 민족은 인류와 함께 영속될 것이므로, 민족 단위 주권국가의 권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.
(나) 인류는 국적, 인종,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 공통의 윤리 규범을 수립하고 세계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. 세계공동체는 전 세계를 민주체제로 전환해야 하며, 세계시민에게 징세와 분배를 실행할 권위를 지녀야 한다.

— <보기> —

ㄱ.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.
ㄴ. 현실을 무시하는 과도한 보편주의를 강요할 수 있다.
ㄷ.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 국수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.
ㄹ. '우리'와 '그들'을 구분 짓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.

① ㄱ, ㄴ

② ㄱ, ㄷ

③ ㄴ, ㄷ

④ ㄴ, ㄹ

⑤ ㄷ, ㄹ

9. (가)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(나) 퍼즐 속 세로 낱말 (A)에 대해 제시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

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승인되고 불행은 가져오는 행위는 부인된다.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,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.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강도, 지속성, 확실성 등이다.

(나)

		(A)			
	(B)				

[가로 열쇠]
(A): 도교(道敎) 권선서(勸善書)의 일종으로 일상적인 행위에서 잘한 점[功]과 잘못된 점[過]을 점수로 기록하는 책
(B): 어떤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일컫는 말. 예) 천부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□□이다. □□와 의무

[세로 열쇠]
(A): …… 개념

- 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.
- ② 행위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자의 동기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.
- ③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.
- ④ 쾌락의 질(質)을 결정하기 위해 쾌락의 양(量)을 계산하는 척도이다.
- 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

10. (가)의 갑,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, ㉡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

갑: 인간과 자연은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. 따라서 인간은 이성으로 우주의 질서를 깨닫고, 정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(apatheia)를 추구해야 한다.
을: 인간은 삶의 의지가 가장 완전하게 객관화된 존재이며,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이다. 맹목적 의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고통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.

(나)

갑: ㉠.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을: ㉡. 그러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.

	㉠	㉡
① 자연법칙에 순응하라	본능적 삶에 충실하라	
② 자연법칙에 순응하라	의지를 철저히 부정하라	
③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라	자연법칙에 순응하라	
④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라	의지를 철저히 부정하라	
⑤ 의지를 철저히 부정하라	본능적 삶에 충실하라	

① ①

② ②

③ ③

④ ④

⑤ ⑤

11.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. 철학으로 신학적 진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철학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.

갑

보편자는 실재하지 않으며, 단지 이름일 따름입니다. 신학적 진리는 계시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철학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을

〈보 기〉

- ㉠. 갑은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된다고 본다.
- ㉡. 을은 보편자가 현실에서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.
- ㉢. 갑, 을은 신학에서 신앙보다 이성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본다.
- ㉣. 갑, 을은 신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구성된 개념적 존재라고 본다.

① ㉠, ㉡

② ㉠, ㉢

③ ㉡, ㉢

④ ㉡, ㉣

⑤ ㉢, ㉣

12.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의지의 선함이 도덕성을 결정한다. 선의지는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, 의무의 행위는 정언 명령으로 표현된다. 인간은 정언 명령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따른다. 이런 이유로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.
을: 의지의 순수한 자기입법이 도덕적 의무의 근원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그 의무가 개인의 의지에 근거한 주관적 도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. 주관적 도덕은 객관적 법으로 발전하고, 궁극적으로 인류로 종합된다.

- ① 갑은 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불행을 낳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로 본다.
- ② **갑은 도덕 법칙의 필연성이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본다.**
- ③ 을은 윤리의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윤리의 상대적 특성을 강조한다.
- ④ 을은 윤리의 역사적 특성이 참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의지의 자율성은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아님을 강조한다.

13. 사회사상이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갑: 사회 이익의 증진을 의도할 때보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된다. 특혜나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되면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형성된다.
을: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. 국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실제 구매력 있는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.

— < 보 기 —

ㄱ. 갑은 자유 경쟁 체제가 국부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한다.
ㄴ. 을은 완전 고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한다.
ㄷ. 갑, 을은 사적 소유권 보장보다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한다.
ㄹ. 갑, 을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주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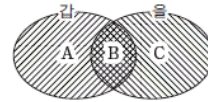
- ① **ㄱ, ㄴ**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14.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.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.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,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.
을: 나는 무지의 배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. 그렇지 않다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.

- ① 갑은 국가의 강제력이 없어도 사회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.
- ② 갑은 계약에 합의하는 순간 자기 보존 욕구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.
- ③ **을은 사회적 우연성이 계약 상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본다.**
- ④ 을은 적극적인 이타심에 의해 사회 정의의 원칙이 구성된다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개인들이 합의한 사회적 규약은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.

15. (가)의 중국 유학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갑: 인간과 사물이 천지 사이에서 생겨날 때, 이(理)는 동일하지만 품수한 기(氣)는 서로 다르다. 인간은 기의 비름과 통합을, 사물은 기의 치우침과 막힘을 얻었다.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다. 을: 인간은 모두 양지(良知)를 지니고 있는데, 그것은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(是非之心)이다.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[性]이고, 내 마음의 본체로서 자연히 대상을 환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.
(나)	 <div data-bbox="1244 1411 1436 1512"><p>— < 보 레 —</p><p>A: 갑만의 입장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C: 을만의 입장</p></div>

— < 보 기 —

ㄱ. A: 인간만이 본연지성(本然之性)을 갖고 있다.
ㄴ. B: 인간은 누구나 사단(四端)을 지니고 있다.
ㄷ. C: 인간의 마음[心]이 없이는 어떠한 이치[理]도 없다.
ㄹ. C: 인간은 누구든지 성인(聖人)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**ㄴ, ㄷ**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16. 다음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민주정치에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다수결만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. 의사 결정은 개인들의 선호를 단순히 종합한 결과로 간주될 수 없으며, 합당하고 도덕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. 따라서 각자의 선호를 공적 의사로 전환시키는 심의가 필수적이다.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대화와 논증 절차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.

- ① 심의 주체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.
- ② 관련된 정보의 공유로 시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.
- ③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.
- ④ **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변화하지 않도록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.**
- ⑤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공론의 장(場)을 마련해야 한다.

17. 근대 한국 사상이 갑, 을,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양물(洋物)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(道)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(仁愛)의 정신을 넓혀 나갈 뿐이다. 우리 것이 융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질 것이다.
을: 천지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[侍天主]. 음식을 먹는 것은 한울님을 먹는 것이니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.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. 이는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.
병: 원(圓)은 우주 만유(萬有)의 본원이며,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실재이다.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비록 천만 가지로 다르나, 실제로 원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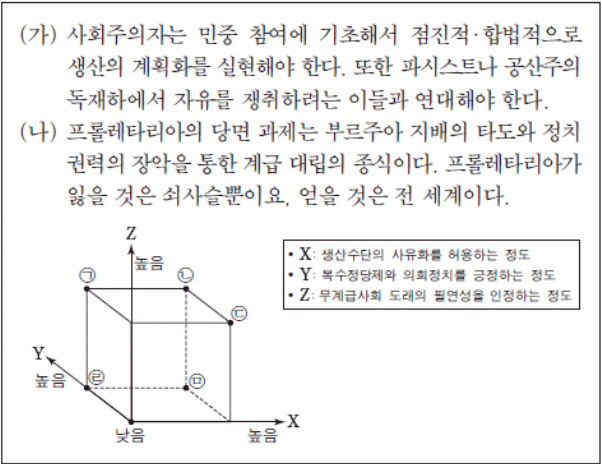
- ① 갑은 화이론(華夷觀)의 관점에서 외세에 대한 저항을 주장하였다.
- ② 을은 봉건적 신분질서에 반대하고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.
- ③ 병은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- ④ 을, 병은 후천개벽을 통한 현세에서의 지상낙원 실현을 주장하였다.
- ⑤ **갑, 을, 병은 유·불·도 삼교(三敎)의 사상적 재통합을 주장하였다.**

18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도덕적·정치적 책무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 연대와 의무를 포함한다. 개인을 무연고적 존재로 이해한다면 이 책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.
을: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은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문명, 지식,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.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.

- ① **갑은 시민의 좋은 삶은 공동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**
- ② 갑은 사회에 선행(先靚)하는 존재로서의 자율적 자아를 옹호한다.
- ③ 을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.
- ④ 을은 다수의 여론을 사상의 자유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- ⑤ 갑, 을은 국가를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.

19. (가), (나)는 사회사상이다. (나) 사상에 비해 (가)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(㉠)~(㉣) 중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

- ① (㉠)
- ② (㉡)
- ③ (㉢)
- ④ (㉣)
- ⑤ **(㉣)**

20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(ㄱ)~(ㄴ) 중 옳지 않은 것은?

서술형 평가

◎ 문제: 중국 불교 사상이 갑과 한국 불교 사상이 을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

갑: 부처는 자성(自性)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. 자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,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다. 자성을 깨달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[頓悟] 단박에 닦는 것이니[頓修], 점진적 단계는 없다.

을: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사람도 이미 여러 생(生)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점진적으로 닦아 오다가, 이번 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한 번에 모두 마친 것일 뿐이다. 요컨대, 돈오와 점수(漸修) 두 가지 문이 있을 뿐이다.

◎ 학생 답안

갑,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면, 갑은 ㉠ 마음으로 가르침[法]을 주고받는 것을 중시하였으며, ㉡ 경전이나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. 을은 ㉢ 습기(習氣)가 있는 상태에서도 돈오는 가능하다고 보았으며, ㉣ 돈오 후에는 정혜쌍수(定慧雙修)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. 한편 ㉤ 갑, 을은 모두 수행 과정에서 교학(敎學)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.

① (ㄱ)

② (ㄴ)

③ (ㄷ)

④ (ㄹ)

⑤ (ㄴ)